

<출제강평> 국가직(세무직) 2021년 4월 17일

2021년 국가직(세무직)회계학은 예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영역별 출제문항수는 재무회계 14문항, 원가회계 4문항, 정부회계 2문항으로 원가회계의 출제문항수가 감소하고 재무회계문항수가 증가하였다.

재무회계는 14문항으로 출제비중이 다소증가 되었으며, 이론문제 4문항 및 계산문제 10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론형문제의 출제비중이 감소하고 계산형문제가 증가하였다. 이론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어려워보이고 계산문제의 출제비중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시간압박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졌을것으로 보인다.

정부회계는 2문항의 이론문제로서 국각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기본수준문제가 출제되었다.

원가회계는 4문항이 출제되어 출제비중이 낮아졌으며 난이도는 평이하였다. 원가흐름 원가배분,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계산부분에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영역별 출제문항수는 국가직과 비슷하였고 복잡한 계산문제는 없었지만 풀이방법을 모르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에서 균형잡인 출제로 보여지며, 특별히 재무회계이론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회계학의 이해가 낮은 수험생은 어렵게 느껴질것으로 예상된다.